

오늘의 계시판

오늘의 계시판 (20일)
▲제 6회 전남도 여성 PC이용 경진대회=오전 9시30분 목포대 정보종합센터, 전남도내 정보교육 받은 여성 104명 참가 예정.
▲광주시 장애인 송년의 날 행사=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체육관.
(21일)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를 위한 조찬회의=오전 7시30분 신양파크호텔 사파이어홀, 김영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이 '광주-전남 여성과학기술인의 발굴 및 향후 활용방법'에 대해 강연.
▲전남체신청, 사랑의 산타 집배원 발대식=오전 8시30분 서광주우체국, 고객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맡기면 오는 23일 산타 복장을 한 집배원이

광주시 장애인 송년의 날 행사

오전 11시 광주시 북구 동림동 장애인체육관

직접 배달해 주는 서비스를 위한 산타 집배원 50명의 발대식.
▲제 85회 21C 담양포럼=오후 3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이보규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장이 '21C 사회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55회 황토골 자치마당=오후 4시 무안군 송달문화예술회관, 양병무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이 '디지털 시대를 재미있게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
▲제 21회 황토제 공연 '남도지아'=21일(목)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제 39회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21일(목) 오후 7시 빛고을 국악전수관.
▲의재 창작스튜디오 오픈전=27일까지 의재미술관 일대, 김지삼·전대광·안창희·진시영·이정록 등 국내 작가 5명과 사라타 동골(Sarita Dongol·네팔)·하지메 미즈타니(Hajime Mizu-

tani·일본)·시아페이 창(Hsia Fei Chang·대만)씨 등 해외 작가 6명 참여, 21일 상안경 2004 광주비엔날레 총감독, 박만우 2006 부산비엔날레 현대미술전 감독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작가와 대화 시간.
▲송파 이규형 개인전=21일부터 27일까지 대동갤러리, 삼락서예원 이규형 원장의 서예 40년 결산전.
▲빛고을 사진회 발표전=30일까지 북구청 갤러리, 기차와 기차길을 담은 사진 작품 전시.
▲자유시간=23일까지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전시관, 전시회 기획동아리 '자유시간'의 창립 기념전.
▲환경과 자연 미술제=27일까지 갤러리 자리아트, 광주시 환경미술협회회원들의 정기전.
▲광주-전남 문인화협회전=20일까지 매트르 갤러리, 문인화 116점 전시.
▲아트그룹 엘레멘(L.M.N) 창립기념전=20일까지 대동갤러리, 조선대 출신 젊은 작가들의 작품전.
▲박일정전=12월31일까지 고희도화원미술관, 도판화(陶板畵)·도자기로 만든 판에 그린 그림) 작품 전시.

뉴스퀴즈

43. '4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제 15회 도하 아시안 게임이 16일 새벽(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 58개·은 53개·동 82개를 획득, 일본(금 50·은 71·동 77)을 제치고 당초 목표순위를 달성했습니다. 종전 대회보다 메달 수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지난 1998년 방콕 대회와 2002년 부산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같은 성적을 지켜냈습니다.
이번 대회 한국의 종합 순위는 몇 위인가?
① 1위 ② 2위 ③ 3위 ④ 4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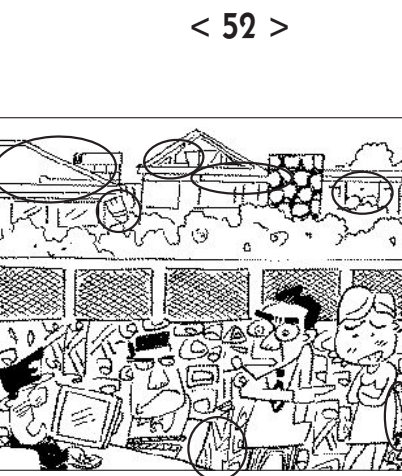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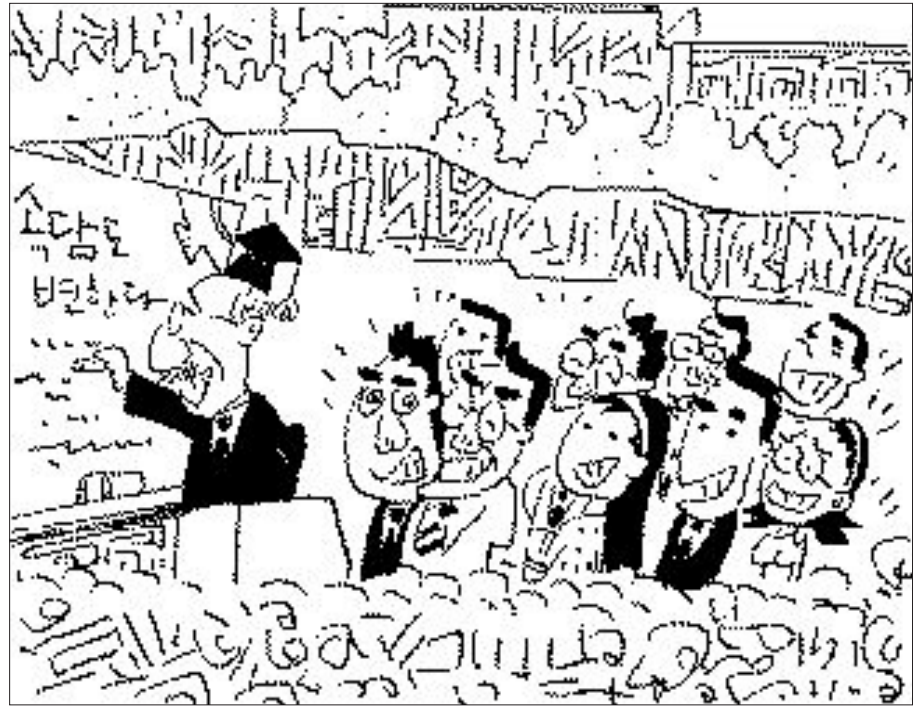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지나주 정답
다리마, 성냥개비, 열대어, 펜촉, 고추, 왕관, A자, 남자 구두, 서투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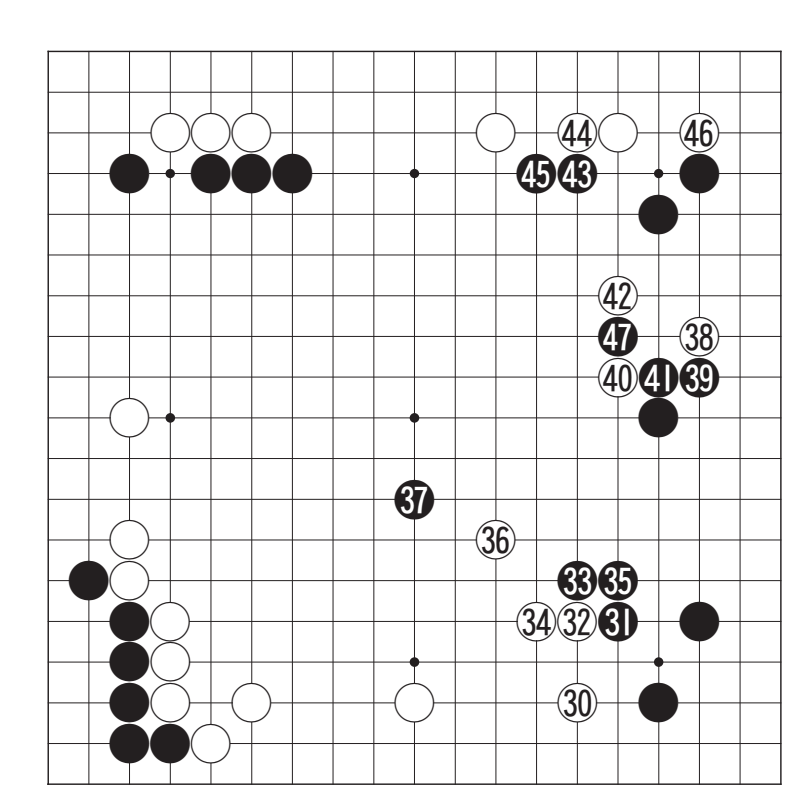


▲찾아보세요
종이배, 다리마, 서투룩, 열대어, 화살, A자, 왕관, 바늘, 뭇

속담의 현대화

- 못 오를 나무는 사다리 놓고 오른다.
-뚫어서 고생, 뚫어서 신경통 된다.
-예술은 지루하고 인생은 아답다.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죽지만 양으면 산다.
-배스 지나간 뒤 손 들면 백미러로 보고 서더라.
-외물이 맑으면 세수하기 좋다.
-고생 끝에 병이 든다.
-아는 길을 곧장 가라.
-길고 짧은 것은 대봐도 잘 모른다.
-작은 고추가 맵지만 수많 고추는 더 맵다.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들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나혜영·광주시 북구 일곡동
김수정·광주시 북구 용봉동



제8회 이창호배 전국 아마 비둑 선수권 대회
상대를 의식한 행마 3보(30~47)
백 조민수 7단 (전남)
흑 김호진 5단 (서울)
백 30으로 벌려 간 것은 큰 곳이다. 이때 김 5단은 온건하게 흑 31로 지켰는데 물론 좋은 수 이기는 하나 꽤 부족하다.
다음 백이 32로 붙이고 36으로 둔 것이 적시타로 갑자기 한번의 백 모양이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31로는 '참고도'의 흑 1로 한줄 더 가서 백을 압박한 다음 3으로 백 모양을 지워야 했다.
이것이려면 백 모양이 크게 줄어들어 활발한 모습이다.
조민수 7단은 근접전에서 믿음은 프로에 못지않은 엄청난 파워를 자랑한다. 김 5단이 31처럼 유순한 수를 둔 것도 다분히 상대를 의식한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김호진 5단이 뒤늦게 37로 사각에 나섰으나 포석에서 주도권을 뺏긴 모습이며 조민수 7단도 38로 우변에 뛰어들어 같이 깨기로 나온다. 백 40이나 42로 비긴 수들은 배워볼만한 행마법이다.
<오규철 9단·본보 비둑해설위원>

바둑소식

백흥서, 원익배 4회전 진출
백흥서 5단이 지난 18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3회전에서 목진석 9단을 155수 만에 흑 불계로 꺾고 본선 4회전에 진출했다.
백 5단은 본선 4회전에서 전기 대회 준우승자로 본선 시드를 배정받은 박영훈 9단과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이 대회는 제한시간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지는 TV 속기전이다. 준결승 진출자는 토너먼트 4회전 시드, 4강 진출자는 토너먼트 3회전 시드를 받는다. 대회 상금 총규모는 2억8천만원, 우승상금은 3천500만원(준우승 1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0일(음 11월 1일 癸未)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굿모닝 잉글리쉬 <801> 오하이오 니혼고 <801> 니하오 쑹구위 <519> 한자 이야기 <419>

How was your recital? 독주회는 어떠했는가?
A: How was your recital?
B: It was good. I got through the piece without any mistakes.
A: I bet you're relieved. You were really stressed out about it.
B: You're right. I was and I am relieved it's over.
A: 당신의 독주회는 잘 진행됐나요?
B: 훌륭했어요. 아무 실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진행했습니다.
A: 한 시를 놓았겠네요. 그 때문에 당신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B: 맞아요. 부담감이 많았어요. 모든 게 끝나서 지금은 편해요.
get through : 끝나다
piece : (문화, 예술 상의) 행사, 작품
be stressed out : 압박감에 시달리다
I bet : 틀림없이 (=surely)
How was ~? : ~은 어떠했는가?
- How was the trip? 그 여행은 괜찮았는가?
- How was your weekend? 주말 어떻게 보냈는가?
- How was your English test? 영어 시험은 잘 봤는가?

中身(なかみ)はなんですか? 내용물은 뭐니까?
A: あのう、この小包(こづつみ)、日本に送(おく)りたいんですけど。
B: 中身(なかみ)はなんですか?
A: 寒(さむ)いので、両親(りやうしん)に着(き)てもらおうと思って。肌着(はだぎ)なんですけど。
B: そうですか?じゃ、この用紙(ようし)に送(おく)り先(さき)と価格(かかく)を記入(きいり)してください。
A: 저, 이 소포 일본에 보내고 싶은데요.
B: 내용물은 무엇입니까?
A: 추우니까 부모님 입으라고요. 내의인데요.
B: 그렇습니까? 그럼 이 용지에 보내는 곳과 가격을 기입해주세요.
小包(こづつみ): 소포
中身(なかみ): 알맹이, 내용물
用紙(ようし): 용지
送(おく)り先(さき): 보내는 곳
記入(きいり): 기입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다
A: 你想买的那件衣服还在打折.
B: 是啊, 不过最近打折的衣服好像都不是很合身.
C: 没关系, 不过最近手头有点紧, 以后再买吧.
D: 你买那件衣服多少钱. 你先给我看看.
E: 不, 我又不是买衣服的, 我只是想买那件衣服.
F: 那件衣服很漂亮, 不过最近手头有点紧, 以后再买吧.
G: 没关系, 不过最近手头有点紧, 以后再买吧.
H: 你买那件衣服多少钱. 你先给我看看.
I: 不, 我又不是买衣服的, 我只是想买那件衣服.
J: 那件衣服很漂亮, 不过最近手头有点紧, 以后再买吧.

密雲不雨 (밀운불우)
백백할 말, 구름 운, 아니 불, 비우
밀운불우(密雲不雨)는 짙은 구름이 끼어 있으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떤 일의 조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비유한다. 즉 모든 여건은 조성됐으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답답함과 불만(不滿)이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다.
'밀운불우'는 '교수신문'에서 올해 한국사회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로 선정되었다. 교수신문의 필진과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교수 2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무려 48%의 지지를 얻고 나온 결과라고 한다. 다시 말해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 문제로 사회 각층의 불만이 폭발 직전 한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6년 한국사회에 일어난 안타까운 일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북한의 핵실험(核實驗)(23.1%)', '부동산정책 실패(18.3%)', '황우석 전 교수 논문조작 사건(7.7%)',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위기(6.75%)', '한미 FTA 졸속 추진(5.3%)'이 올라왔다. 무엇보다 속 시원하게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속이기 때문에 '밀운불우'라는 성어가 2006년을 대표하는 말이 되었지만, 새해에는 두터운 구름층이 걷히도록 시원한 빗줄기가 내렸으면 한다.